

잘 팔리는 '가공밥' 쌀소비 감소 대안 될까

1인 가구 증가·고령화로 200g 1년 2억개 팔려

3년새 40%↑...4천억 가점간편식 시장 절반 차지

전자레인지 등에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공밥 시장이 국내 쌀 소비 감소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가정식 대체식품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033억원 규모 가정간편식 소매시장에서 가공밥은 판매액 비중이 약 절반(48.8%·1969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이 팔렸다.

이러 국·양·짜개류(9.4%), 죽류(8.9%), 카레류(8.2%), 수프류(7.6%) 순이다.

지난 1996년 CJ제일제당에 '햇반'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소비자에게 가공밥은 생소한 제품이었다. 이후 오뚜기, 동원F&B 등 후발주자가 잇따라 가공밥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국내 전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즉석 섭취식품 1조1609억원, 즉석조리식품 5851억원 등 총 1조8224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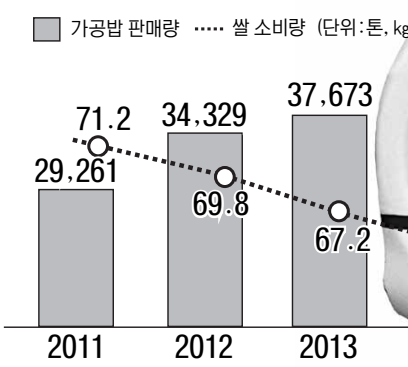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와 식생활 변화로 2008년(9509억원)과 비교하면 6년 새 시장이 91.6%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1.1%다. 국내 가공밥 판매량은 2011년 2만 9261t에서 2014년 4만 1087t으로 40.4%나 늘었다.

가공밥이 보통 한 개에 200g인 점을 고려하면 1년간 약 2억개가 팔린 셈이다.

특히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이 기간 잡곡 가공밥 판매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3.3%로 전체 가공밥(12%)과 흰밥(9.4%)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kg에서 65.1kg로 8.6% 줄었다. 연간

■가공밥 판매량과 1인당 쌀 소비량



쌀 소비량은 1985년(128.1kg)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작년에는 쌀 소비량이 62.9kg까지 떨어졌다.

가공밥의 경우 국산 사용 비중이 높아 쌀 소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식음료제조업 전체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2%이지만 가공밥 등 가정식 대

체식품의 국산 원재료 사용은 비중은 56.9%에 달했다.

하지만 가공밥을 통한 국내 쌀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포장·저장·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광록기자 kroh@

사물인터넷 만난 전력...정전 미리 막는다

한전 배전선로 고장감지 시스템

TF 발족...2018년까지 개발

배전선로의 고장을 미리 파악해 정전을 막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전력은 3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배전계통 정전을 예방하는 고장에 지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배전선로에서는 총 544건의 일시 정전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제작 불량, 부식 등 불량 기자재 때문에 발생한 정전 사고는 189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전선로 고장파의 형태를 IoT센서와 배전지능화시스템(DAS)을 통해 감지하는 방식이다.

전압, 전류 등 배전선로의 운전정보를 감시하는 DAS는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해 정전을 복구할 수 있다.

한전은 이날 사내외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배전선로 고장예지시스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자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실증시험장 구축, 고장판정 알고리즘 및 IoT 센서 개발, 빅데이터 관리 분석용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한국전력은 3일 오후 본사에서 배전선로 고장예지시스템 T/F를 발족하고, 설비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전계통의 정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배전선로 고장예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배성한 한전 영업본부장이 T/F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고장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배전선로의 불량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특이파 형태를 선별해 고장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내년까지 전력 분야에 특

화된 외장형 IoT 센서를 만들며 2018년부터는 이 센서가 내장된 전력기를 상용화하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한전은 배전계통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을 연계하기 위해 정보 보안 기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배성한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최신 IoT 기술을 배전계통에 접목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사업"이라며 "정전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웹 개선 사업 총 25억 지원

비표준 액티브X 전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웹 표준 전환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웹 표준 전환지원 및 선도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만연한 비표준 기술(액티브X 등) 이용 관행을 바꿔 웹 환경을 개선하고 웹 산업 경쟁력을 높여려는 조치다.

웹 서비스 제공 기업과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웹 기술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총 지원 금액은 25억원이다.

KISA는 지난해 지원 사업을 통해 약 23억원을 투입, 총 37개 업체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 사이트 내 사용되던 액티브X의 93%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웹 솔루션 도입 지원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결제·인증·보안·전자문서 솔루션의 신속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웹 솔루션 개발 지원을 통해 현재 대체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PC 제어,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의 개발을 집중 확대하고 외산 솔루션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차세대 웹 선도서비스 개발지원을 통해서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나 타 산업과 웹을 연계한 선도 서비스 등을 발굴한다.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4월 12일까지 HTML5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korea-ahm15.kr)에서 가능하다. KISA는 평가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실시간 해킹 방어...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 교육과정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K-Shield 인증 교육 과정은 사이버공격 탐지와 분석, 대응에 특화된 보안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직 정보기술(IT)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 웹 해킹 등 분야별 이론 교육과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대응, 팀·개인 단위의 실시간 공격 대응·방어 훈련 등을 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200시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단계별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서가 수여된다.

오는 11일까지 모집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kis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문정보공개 교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은 지난 25일 간부급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대비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선형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시행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김명룡 원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생산되는 공공기관 정보목록과 기관장결재문서(공개문서)가 행정자치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